제 2제정



- 1. 집권이후 바로 즉시 동성애 술집 영업정지와 음란물 판매금지등의 동성애 탄압 정책을 시작
- 2. 그러나 나치 집권 이후 동성애 탄압 숫자는 이전과 별차이가 없음
- 3. 탄압은 주로 하위문화에 집중됨
- 4. 그리고 동성애자에만 주요한 탄압을 한게 아닌 음란물에 집중적 탄압이 가해졌고 성노동자에 대해 집중적 탄압이 가해짐
- 5. 즉슨 나치의 관심은 동성애가 아니라 건전한 성임
- 6. 그리고 룀의 처형 이유는 그의 동성애적 성향이 아니라 그의 돌격대의 권한 강화와 룀의 혁명적 성향때문임
- 7. 그리고 나치는 동성애자보단 동성애자란 명목으로 구정치인을 숙청하려했음
- 8. 변화는 뢲의 처형으로 인해 시작됨
- 9. 나치의 특성중 하나는 남성끼리의 동맹이였고 동성애자 처벌로인해 이 성향이 약화될까 우려함
- 10. 동성애 처벌 조항이 개정됨 그리고 이제는 모든 동성애적 성교 행위와 동성애적 의도도 처벌됨
- 11. 그리고 법 개정은 나치의 보수우익의 공통적 관심사가 드디어 실현된것에 가까움 그러므로 반동성애적 보단 나치의 권위주의 적 국가의 실현의 표현에 더 가까움 그러나 성은 방치가능한 문제가 아니였음 인종의 문제였기에
- 12. 동성애 관련 범죄의 체포자가 급증함
- 13. 나치는 동성애를 빌미로 카톨릭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 이것은 두가지 목적이였는데 카톨릭 교회의 자율성 박탈과 국가 교육의 독점이 목적이였음
- 14. 동성애가 종교, 교육의 의제가 떠오르며 수십명이 체포됨
- 15. 힘러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동성애자 체포는 게슈타포의 주요 임무가 됨 그리고 힘러의 친위경찰이 지도자 직속 최고 기관이 되었단것은 나치 국가가 테러국가로 변화되었단걸 의미함
- 16. 힘러는 연설에서 남성동맹의 과잉이 동성애로 이어진다 지적함
- 17. 그럼 왜 나치는 남성동맹에 집착했을까? 우선 그것은 나치국가란 특성에서 나타남 나치란 체제는 지도자 직속기관의 특징인 지도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충성심을 보장할수 있었고 이것은 비밀경찰을 필수요소임 그리고 히틀러의 권한 강화 또한 유도 됨 그러나 이것들은 행정규범과 업무체계를 파괴했고 비효율의 극치였음 그렇기에 남성동맹이 강조됨
- 18. 나치는 분방한 성을 강조함 왜냐? 인구의 재생산을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로 판단했고 성에게 긍정적 태도를 가짐 성노동자 또 한 공창으로 변경됨
- 19. 그럼 이성향은 어디서 나온걸까? 근본은 바이마르의 자유로운 성격과 반 카톨릭적 도덕주의임 나치의 지도자들은 자유분방함을 어느정도 찬양했고 그렇기에 혼외정사 또한 권장됨 성애 또한 남성성의 강화로 판단됨
- 20. 다시말해 나치는 바이마르의 자유로운성을 이어받되 이것을 누리는 인간과 아닌 인간을 구분함
- 21. 나치의 동성애 탄압은 심각해졌고 바이마르시절 600명대의 유죄판결은 5000명대로 늘어남 2000명대의 예방구금 조치가 취해 졌고 87명이 거세됨(모두 동성애자인지는 불확실)수용소의 수감된 동성애자는 1만 5000명이 넘어갔음 그러나 이는 다른 범죄자 (특히 유대인)에 비해 유하게 처벌된것임
- 22. 전쟁의 발발이 그 이유로 추정됨 왜냐? 다시 한번 남성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기에 또한 동성애 치료 담론을 국가 단위에서 진지하게 믿었기에 그렇기도 함

23. 그렇다면 왜 치료가 필요했는가? 나치는 인구가 필요했음 그렇기에 남성 동성애자를 치료해 다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안됐음 그러나 이 설명에 문제가 있음 남성동맹 소속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동성애자 처벌이 상당히 유해진 이유를 설명 못하기에 그러나 이것 또한 지극히 단순한 이유에서 설명이 되는데 게슈타포의 인력부족임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 더있음 법무부와 게슈타포의 내부 갈등임 게슈타포는 체포와 재판의 독점을 통해 국가를 힘러의 국가로 만들려했고 법무부는 반발함 그 이유는 보통 사법부의 권력 약화였음

황제 만세